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01	08. 08	08. 15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김복자 권사
성 경 봉 독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김복자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개인적으로 모세오경, 시가서도 완독해 주세요.
2. 주보 발송 - 여름 휴가기간(22일부터)동안 주보 발송은 쉽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목사에게 신청해주시시오.
3. 선교 편지 - 김선택 선교사님의 선교편지가 교회 홈페이지 '나눔터'에 실렸습니다.
4. 교회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개인 영성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5.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양승원 성도 Andreas Mäder 성도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 303장 ..... 다같이  
 기 도 Gebet ..... 통성기도  
 성경봉독 Predigttext ..... 출 25 : 10 - 15(구p120) ..... 이 현 성도  
 (2.Mose 25:10~15)  
 설 교 Predigt ..... 어떻게 변하고 싶나요? .....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 305장 .....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 유(有)와 무(無)의 진실

Paul Rader는 종종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소년이 길가의 담장 구멍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때때로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다. 저 애는 왜 저렇게 난리인가? 혹은 혹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구멍을 통해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야구 경기를 보면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칠 때마다 펄쩍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행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그 아이는 행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미쳤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에 대해 반응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것이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 열광하는 것을 보고 비웃는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는데 세상의 비웃음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나는 세상의 따돌림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세상과 충돌하라 / A. W. Tozer 목사  
 (미국, 1963년 5월 소천)

\*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여길 때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  
 - 故 Oswald Chambers -